

아라



언니 나 진짜 억울해 금 또 떨어졌어

주아



ㅋㅋㅋ 왜 또

아라



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

나 작년부터 조금씩 모아서 산 거란 말이야 근데 뉴스 보니까 전쟁 났대

전쟁 나면 금 오르는 거 아니었어?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어른들도 다 그러던데

주아



맞아 원래 그랬어 근데 이번엔 안 그랬어

그것도 하나만 안 맞은 게 아니라 공식이 세 개가 한꺼번에 깨졌어

오후 8:33

아라



세 개나?

주아



응. 전쟁 나면 금 오른다 → 안 올랐고 금리 내리면 금 오른다 → 금리가 오히려 올랐고 주가 떨어지면 금 오른다 → 이것도 안 맞았어

아라



헐 그럼 내가 알던 건 다 뭐야

주아



일단 얼마나 떨어졌는지부터 보자

금 고점 대비 하락률

-23%

당일 고점 기준으로 보면 -26%. 6월 19일 종가는 온스당 \$4,150

아라



어우 근데 나는 체감상 그것보단 덜 떨어진 것 같은데?

주아



오 맞아 그거 네 착각 아니야

저건 달러로 본 거고 요즘 원화가 5~6% 정도 약해졌잖아
그래서 원화로 금 보는 사람들은 한 17% 정도 떨어진 걸로
느껴

아라



아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17%도 아프거든?

주아



ㅋㅋㅋㅋ 알아 알아

아라



근데 진짜 왜 그런 거야 전쟁이랑 금이랑 무슨 상관인지부터 모르겠어

주아



이거 설명하려면 미국 국채 얘기를 해야 돼

1945년부터니까 80년 동안 미국 국채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었어 그래서 전쟁 나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었어

불안하니까 달러를 사 → 현금으로 들고 있긴 아까우니까
미국 국채를 사 → 국채 사는 사람 많아지니까 국채 값이
올라 → 국채 값이 오르면 금리는 내려가

아라



잠깐 그게 왜 반대로 가?

주아



아 그거 헷갈리지 채권은 값이랑 금리가 시소야. 한쪽
올라가면 한쪽 내려가

아라



오케이 일단 그렇다 치고

주아



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금값이 올라 금은 이자가 안
나오는 자산이잖아 이자가 낮아질수록 금이 손해를 덜 보는
거지

아라



아하 그래서 전쟁 = 금 상승이었구나

주아



응 80년 동안 한 번도 안 틀렸어 이번에도 처음엔 그대로 갔어

아라



어? 갔어?

주아



딱 사흘

진짜 딱 사흘이야

사흘 뒤에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어 돈이 안전자산으로 안 몰린 거야

아라



그게 무슨 뜻이야

주아



미국 국채가 더 이상 제일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는 걸 전 세계가 그 자리에서 본 거지

아라



와 80년 만에?



주아

응. 근데 금 입장에선 좀 억울해

금이 뭘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유탄 맞은 거거든 금리가 오르니까 자동으로 늘린 거야

아라



근데 왜 갑자기 돈이 국채로 안 갔어?



주아

이번 전쟁 성격이 달랐어. 유가 전쟁이었거든 예전엔 달러 사서 그걸 국채에 넣었는데

이번엔 석유를 사야 됐어 그래서 달러는 샀는데, 딱 석유 살 만큼만 샀어

오후 8:50

아라



남은 돈이 국채로 안 간 거네



주아

정확해 그래서 이상한 조합이 나왔어 달러는 세지고, 국채는 약해지고 = 금리는 오르고

아라



둘 다 금한테 안 좋은 거지?



주아

응 금은 달러 세지면 떨어지고 금리 오르면 또 떨어져

 1

양쪽에서 동시에 맞은 거야

근데 재밌는 게 있어

미국 국채가 안전자산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 그거 길게 보면 오히려 금한테 좋은 소식이야

아라

왜?



주아

안전한 자리 하나가 비었잖아 그럼 사람들이 그 자리 대신할 걸 찾겠지

아라

아 금



주아

응. 근데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

아라

아 맞다 언니 나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
내 친구가 스페이스X 청약했다고 자랑하던데





주아

ㅋㅋㅋ 그거 이 얘기랑 연결돼

그게 역대 제일 큰 상장이었어 끌어모은 돈이 750억 달러

아라



감이 안 온다



주아

예전 1등이 사우디 아람코였는데 그게 294억 달러

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

미국은 청약할 때 현금 안 내도 돼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맡기면 돼

아라



오 그럼 안 팔아도 되네



주아

응. 근데 금은 안 받아줘

아라



엥? 왜???



주아

미국이 금값 눌러두려고 금은 담보로 안 쳐주는 걸

아주 오래전부터 원칙으로 정해놨대

아라



헐 그럼 주식 있는 사람은 안 팔고 청약하는데 금 있는 사람은 팔아야 청약할 수 있는 거야?

주아



아라

금 있는 사람은 팔아야 청약할 수 있는 거야?

어

아라



아니 이게 무슨 차별 아니야?

주아



ㅋㅋㅋㅋㅋ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진짜 소름은 이거야

청약 마감일이 6월 11일이었는데 그날이 금값 제일 바닥이었어

아라



와 우연이 아니네 그건

주아



게다가 구글도 그때 큰 유상증자를 했어 사람들이 빅테크 주식 팔기는 아까우니까 많이 올라있던 금을 팔아서 돈 만든 거지

아라



6월 초에 다 몰렸구나



주아

거기에 하나 더 있었어

미국 연준 회의

아라



금리 올렸어?



주아

아니 동결. 12대 0으로 만장일치

아라



그럼 좋은 거 아니야?



주아

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회의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지 점을 찍거든 18명 중에 9명이 올려야 된다고 찍었어

응. 그전까진 아무도 인상 얘기 안 했었어

근데 갑자기 절반이 인상에 손을 든 거야 그러니까 달려가 또 세졌지. 13개월 만에 제일 높이

아라



금은 또 맞았겠네

근데 언니 이상한 게 있어

금리 오르면 금 떨어진다는 거 옛날 얘기라고 하지 않았어? 올해 초엔 금리 올라도 금 잘만 올랐잖아



주아

오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이야 강의에서도 그 질문이 나왔어

답이 좀 의외야 연동이 끊어졌던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금 시장에 빚내서 산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야

오래 들고 갈 사람들만 있었으니까 금리가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었지

아라



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지?



주아

응 금값이 확 오르니까 빚내서 단기로 먹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확 들어왔어

아라



그 사람들은 금리 오르면 이자 부담되겠다



주아

바로 그거야

그래서 금리 오르니까 못 버티고 팔고 나가는 거지 정리하면 이래 자산은 비싸질수록 금리에 민감해져

아라



오 이걸 좀 멋있다



주아

ㅋㅋㅋㅋ 금만 그런 것도 아니야. 다 그래

아라



아 근데 나 요즘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더 있어

코스피 올랐다고 뉴스 나오는 날 있잖아 3%씩 막 근데 내 주식은 안 올라

주아



ㅋㅋㅋㅋㅋ 그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지수가 3~4% 오른 날에 오른 종목이 100개, 내린 종목이 700개인 날이 계속 있었어

아라



옹 반대 아니야?

주아



맞아 원래는 반대여야 돼

3% 오른 날이면 오른 종목이 700개여야 정상이지

아라



근데 왜 뒤집혔어

주아



AI 관련된 것만 오르고 있어서 미국도 똑같아. 올해 오른 건 거의 다 AI랑 에너지야

아라



나머진 다 마이너스?



주아

응 대부분 근데 이게 금이랑 연결돼

오후 9:26

아라

어떻게?



주아

연준은 물가랑 고용을 본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주가도 봐.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래

근데 지금 지수가 엄청 좋잖아 주가 폭락하고 경제도 나쁘면 돈을 풀면 되는데 지수가 신나게 오르는데 돈을 푼다? 그거 진짜 어려운 결정이야

오후 9:28

아라

그래서 돈을 안 푸는구나



주아

응. 그리고 금은 돈을 풀어야 오르는 자산이야

아라

아 아 그래서 금이 늘린 거구나



주아

이번 하락의 진짜 뼈대가 그거야

아라

근데 그럼 미국 경제는 진짜 좋은 거야?



오후 9:32

 주아

그게 웃긴 부분이야 숫자는 좋은데 실물은 반대야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월급은 안 올랐고 하위 90%는 소득도 재산도 줄었어

아라 

90%면 거의 다잖아

 주아

응. 소비가 늘어난 건 상위 10%, 많이 잡아도 20% 정도야 나머지 80%는 오히려 많이 줄었어

오후 9:34

아라 

그럼 원래는 돈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네

 주아

맞아. 근데 AI가 만든 좋은 숫자가 그 명분을 지워버린 거지

아라 

가려진 거네 실물이

 주아

응 정확한 표현이다 그거

아라 

아 맞다 내 친구는 비트코인 반토막 났다고 울던데

 주아

그것도 같은 물건이야

비트코인도 돈이 풀려야 오르는 자산이거든 AI 빼고 거의 다 눌렀는데 그중에 제일 크게 망가진 게 비트코인이야

아라 

위로해줘야겠다 그래서 언니

금은 언제 올라

 주아

강의에서 그거 딱 한 줄로 말했어 AI가 꺾인 다음에 오른다

아라 

오 그럼 AI 꺾이면 바로 오르는 거야?

 주아

아니 그게 함정이야 AI가 꺾이면 일단 돈이 확 마르거든 그럼 금도 같이 떨어져

오후 9:41

아라 

엥 같이?

 주아

응 처음엔 같이 떨어져 그다음에 연준이 '아 사실 경제 안 좋았네' 하면서 돈을 풀어 그때부터 금이 오르는 거야

아라 

그 사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

 주아

과거를 보면 이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돈 풀기까지
6개월 걸렸어 → 금도 6개월 떨어졌고

2020년 코로나 때는 서너 주 만에 풀었어 → 금도 서너
주만 떨어지고 확 올랐어

아라 

차이가 왜 그렇게 커

 주아

학습이지 뭐 2008년엔 처음 겪는 일이라 결정을 못 했고
2020년엔 이미 해본 적 있으니까 바로 한 거야

아라 

아 사람이나 나라나 똑같네 근데 언니

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끝난 거 아니야? 금 시대 끝난 거
아니냐고

 주아

오 그게 이 강의의 진짜 질문이야 앞에 얘기한 건 다 '왜
떨어졌나'였고 뒤에는 '이게 끝인가'를 따져

오후 9:49

아라 

어떻게 따지는데

 주아

역사를 봐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1년 동안 금이 24배
올랐거든

아라



24배???

주아



응 웬만한 주식보다 많이 올랐어 근데 그 11년이 쭉 올라가기만 한 게 아니야 중간에 크게 두 번 떨어졌어

오후 9:51

아라



얼마나

주아



1973년에 한 30% 1976년엔 42%

아라



헐 반토막 가까이네

주아



근데 낙폭보다 무서운 게 있어 그 1976년 조정이 20개월이었어

아라



20개월? 거의 2년이잖아 나 그거 못 버텨

오후 9:53

주아



ㅋㅋㅋ 그때 사람들도 다 그랬대 '금 이제 끝났네' 하면서

아라



근데?



주아

그 뒤에 650% 올랐어

아라



헐 650%면



주아

7.5배

아라



와 미쳤다

 1

버틴 사람이 이겼네



주아

근데 1980년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

24배 다 오르고 나서 70% 떨어졌고 그 뒤로 20년 동안
죽어있었어

아라



20년... 그건 진짜 끝난 거네



주아

응 그래서 질문이 이거야 지금은 1976년이야,
1980년이야?

아라



오 질문 잘 세웠다



주아

그거 따지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

1976년 조정 끝나고 650% 오르던 그 시기 말이야 그때 미국 금리가 몇이었게

아라



음 낮았겠지? 금이 올랐으니까



주아

8~9%

아라



엥? 높잖아 그거



주아

응 엄청 높지 근데 금은 날마다 올랐어

오후 10:02

아라



왜?



주아

물가가 더 빨리 올랐거든 물가가 1년에 15% 오르는데 금리가 10%면

아라



어... 5% 손해?



주아

맞아. 실질금리가 -5%인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높냐
낮냐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

물가보다 높냐 낮냐가 전부야

아라



아 그럼 '금리 올리면 금 떨어진다'도 항상 맞는 말은
아니네



주아

응 강의에서 딱 그렇게 말했어 절대 아니래

 TIME GUEST



폴 볼커

1980, 미국 연준 의장

"나는 기준금리를 19.5%까지 올렸다. 그렇게 해서 금값의 20년을 끝냈지. 그럴 수
있었던 이유는 하나다 — 그때 미국의 빚은 GDP의 31%뿐이었다. 금리를 아무리
올려도 정부가 무너질 걱정이 없었다. 지금 자네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나?"

아라



31%... 지금은 얼마인데



주아

124%

오후 10:08

아라



헐 네 배?

 주아

보통 80% 넘으면 위험하다고 봐 참고로 우리나라가 50% 넘어서 60% 정도야

아라 

그럼 미국은 진짜 많은 거네

 주아

응. 그래서 금리를 19.5%까지 올린다? 불가능해 이자 갚느라 국채를 더 찍어야 되고, 그럼 빚이 눈덩이가 돼

오후 10:10

아라 

오케이 첫 번째는 완전 다르네

 주아

두 번째는 금광이야

아라 

금광?

 주아

응 새 금광이 얼마나 발견되는지 1990년대엔 139건 발견됐어 2017년 이후엔 0건이야

오후 10:12

아라 

0? 근데 나 뉴스에서 중국이 금 엄청 발견했다고 본 것 같은데



주아

ㅋㅋㅋ 그 얘기도 강의에서 다뤘어 중국에서 발견됐다는 금 있잖아 지하 1,000m에 있어

아라



그게 깊은 거야?



주아

지금 세계에서 제일 깊은 금광이 500m야

오후 10:14

아라



아 두 배네 그럼 못 캐는 거잖아



주아

응 발견이라기보단 보도자료에 가깝지

아라



ㅋㅋㅋㅋㅋ 사우디는? 거기도 나왔던데



주아

사우디는 이유가 달라 금 캐고 정제하는 데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물이거든

오후 10:16

아라



어 사우디 물 없잖아



주아

그치. 바닷물 걸러서 만든 식수를 쓰는데 그 귀한 물을 금 캐는 데 쓴다? 말이 안 되지

아라



오 이거 완전 현실적인 이유네

주아



세 번째는 중앙은행이야

1980년대엔 금 사는 나라가 아예 없었어

아라



왜?

주아



미국이 진짜 셋거든. 레이건 시절이야 영국은 미국이 팔라면 팔았고 일본은 돈 있어도 살 엄두를 못 냈고 중국이랑 인도는 그때 가난했어

아라



아무도 안 샀네 진짜

주아



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야

중국도 인도도 부자가 됐고 미국 말도 안 들어 달러 자산이 동결되는 걸 보고 나서 '달러보다 금이 낫겠다'로 돌아선 나라가 많아 3년째 계속 사고 있어

아라



3년이면 짧은 게 아니네



주아

근데 더 놀라운 건 유럽이야

오후 10:24

아라



유럽이 왜



주아

독일이랑 프랑스가 자기 나라 금을 뉴욕에 맡겨놨었거든

아라



왜 남의 나라에 맡겨



주아

2차 대전 때 다 뺏겨봤잖아 유럽에서 또 전쟁 나면
위험하니까 미국에 맡기자 한 거야

근데 미국이 금고를 잘 안 보여줬대

확인하자고 하면 일련번호도 잘 안 맞고

아라



엥? 그거 좀 무서운데



주아

그래서 독일이 '못 믿겠다 금 내놔' 하고 찾아오기 시작했어
프랑스는 미국에 있는 건 팔아버리고 따로 사서 자기
나라로 가져왔고

아라



와 유럽까지 그러면 진짜 분위기가 바뀐 거네



주아

네 번째는 패권이야

1980년대는 소련이 무너지던 때라 미국 혼자 남는 분위기였어 그때는 '금이 왜 필요해, 달러면 되지'가 상식이었지

아라

지금은?



주아

여러 나라로 흩어졌어. 미국 하나가 아니야

아라

그럼 네 개 다 다른 거야?



주아

응 네 개 다 1980년엔 금값 누를 조건이 4개 다 있었고

지금은 0개야

아라

4대 0이네



주아

ㅋㅋㅋ 그렇게 말하니까 축구 같다 그래서 강의 결론이 이래 구조로 보면 1980년보다 1976년 쪽에 훨씬 가깝다

아라



근데 언니 나 헛갈리는 게 있어

그럼 왜 떨어진 거야 지금 조건이 하나도 없다며

주아



오 그게 이 강의에서 제일 쓸모있는 부분이야 떨어뜨리는 거랑 끝내는 건 다른 거래

아라



어떻게 달라

주아



방아쇠랑 조건으로 나눠서 봐

방아쇠는 조정을 당기는 거야. 달러가 세지거나, 실질금리가 오르거나, 전쟁 불안이 좀 풀리거나 지금 이 셋은 다 켜져 있어

아라



그래서 떨어진 거구나

주아



응. 근데 조건은 달라 조건은 아까 볼커 아저씨가 말한 거야. 금리를 19.5%까지 올릴 수 있어야 돼 근데 빛이 124%인데 그게 되겠어?

오후 10:40

아라



안 되겠네



주아

그래서 지금은 방아쇠가 당겨진 거지 천장이 온 게 아니라는 거야

아라



아 '떨어졌다'랑 '끝났다'가 다른 말이구나



주아

아라
'떨어졌다'랑 '끝났다'가 다른 말이구나

어 그거 그대로 강의 문장이야

아라



근데 빛은 왜 못 줄여?

오후 10:44



주아

고령화 때문이야 어르신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금 낼 사람은 안 늘어 복지 지출을 줄이면 되지 않냐고?

아라



응 줄이면 되잖아



주아

작년에 마크롱 대통령이 그거 발표했다가 파리 시내가 불탔어

정권이 안 버텨. 그래서 어느 나라도 못 해

오후 10:46

아라



그래서 언니

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

주아



강의에서 여기 선을 딱 그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랑, 언제 바닥인지 아는 건 다른 얘기래

길게 보면 금이 오를 구조인 건 맞는데

그게 '지금이 바닥'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야 1976년처럼 20개월 갈 수도 있는 거고

아라



그럼 나 지금 더 사야 돼?

주아



그건 강의에서도 모른다고 했어 워런 버핏도 레이 달리오도 '나는 타이밍은 모른다'고 말한대

오후 10:53

아라



그 사람들도?

주아



응 바닥에서 사서 천장에서 파는 건 거의 불가능하대 그래서 대신 말한 게 세 가지야

아라



원데

 주아

하나, 단기로 베팅하지 말고 길게 닳처럼 쓰라는 거 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닳을 내려야 되잖아. 금이 그 역할이래

둘, 한 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사라는 거 셋, 가운데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

아라 

가운데?

 주아

어정쩡한 거. 특히 현금은 길게 보면 계속 흔들려 현금을 들고 있을 거면 원화보단 달러가 낫다고 했어

오후 10:57

아라 

비율 같은 것도 얘기했어?

 주아

응 근데 이걸 강사님이 2019년부터 똑같이 해온 얘기래 달러 5에 금 1

아라 

왜 5대 1이야

 주아

달러가 1만큼 움직이면 금은 5만큼 움직여서 그렇대

실제로 달러 지수가 1년 전 110에서 100까지 내려오는 동안 금이 서너 배 올랐거든

아라



오 그래서 균형이 맞는 거구나

주아



응. 그리고 그 달러 5는 나스닥이나 미국 단기채로 채우라고 했고 AI 쪽에 투자하는 사람 기준으로는

AI 3~4에 금 1, 단기채 1~2 정도를 권한대

오후 11:01

아라



AI랑 금이 반대로 가니까 그런 거지?

주아



바로 그거야 AI가 꺾일 때 금이 받쳐주는 구조인 거지

아라



아 정리되는 것 같아

그니까 지금 떨어진 건 이유가 다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끝났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나눠서 사고 길게 보라는 거네

주아



오 완벽하다 강의 마지막 문장도 딱 그거였어 길게 오를 자산이어도 조정은 여러 번 오고

많이 오른 만큼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진다고 그걸 알고 투자하라고

아라



음 이걸 금 말고도 다 해당되는 말이네

주아



응 그래서 좋은 마무리야

아라



언니 근데 이번 강의는 좀 짧은 것 같던데

주아



아 그거 강사님이 직접 말했어

이번 건 예고편이자 속보래 금값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큰 그림만 먼저 알려주는 거고 금이랑 은이랑 원자재 전체 얘기는 파트 6에서 제대로 한다고

아라



오 기대된다 그때도 풀어줘

주아



당연하지 다음 강의 올라오면 또 풀어줄게

오후 11:10

아라



ㅎㅎ 고마워 언니 금 안 팔고 좀 더 들고 있어볼래